

그때
그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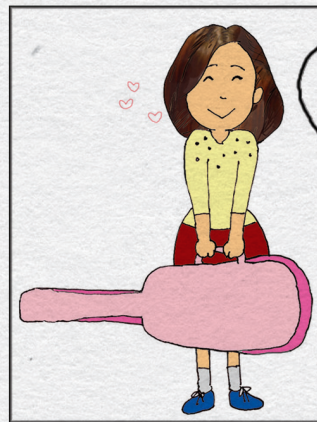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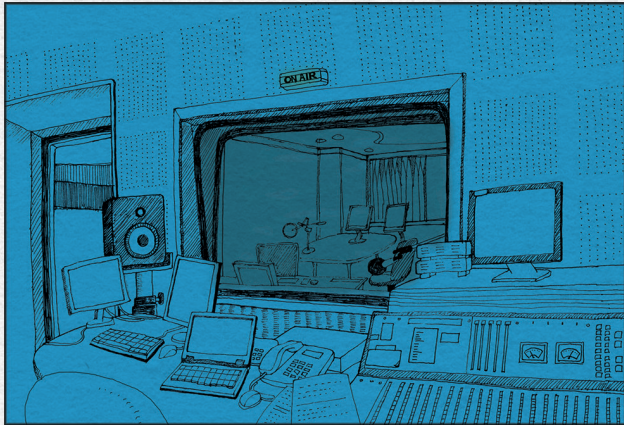
DJ와의 열애설

아이돌가수 A양이 DJ로 있는 프로그램에서 생김일



남는 시간 A양은 기타를 튕기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MBC 방송국 라디오 스튜디오



저... PD님,
스튜디오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기타 연습해도 되나요?

어느날 기타를 들고
A양은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illegible]

‘내가 가르쳐 줄까?’

엔지니어는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스튜디오 엔지니어는 A양의 기타치는 소리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기타를 가르쳐주기 위해 의자뒤에서
A양을 감싸안듯한 자세로
기타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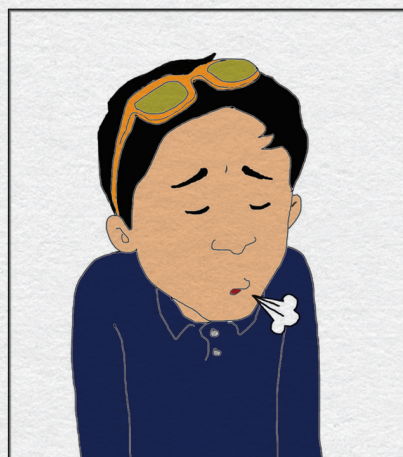
그때 누군가 스튜디오 밖에서
두 사람을 주시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DJ A양 열애설 기사가 큼지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심쿵, 어제 DJ양과 너무 친한 포즈,
그것을 기자가 열애설로 터트렸나?



시원...
성삼...

휴우~ 다른 배우와의 열애설이었습니다.
혼자 김칫국 마셨군! 양도감과 허탈감이 공존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